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26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곽초롱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럽 한인회, 재외동포재단 설문조사 문제점 지적

- 유럽한인총연합회, 재외동포재단 설문조사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  
 - 유럽 동포 의사 미반영 · 설문조사 기본요건 갖추지 못해 -

유럽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지난 24일,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성명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외동포재단은 3월 23일, 2,467개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3일간(3월20~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재외동포단체의 70%가 재외동포청 서울 유치를 희망한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곧바로 성명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문 결과는 신뢰성이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럽한인총연합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설문에서 배제돼 유럽 한인들의 의사가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 도시의 제안이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두번 의,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다는 점 △단체별로 설문을 취합해 대표자가 해당 숫자만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 등을 들며 설문조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피력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는 도시가 재외동포들에게 어떤 정책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행정편의 주의에 따라 결정해서는 곤란” 하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공언한 뒤 그 해 10월 지방 최초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했고, 이미 2회에 걸쳐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최초의 재외동포주택단지, 재외동포 를 위한 해양관광레저단지, 인천글로벌캠퍼스, 녹색기후기금(GCF) 포 함 다수의 국제기구 등 재외동포를 위한 최적의 경제·정주환경을 갖춰 가고 있다.

한편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 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 월부터 미국, 우즈베키스탄, 홍콩, 라오스, 대만, 카자흐스탄 등의 한 인 단체도 지지를 선언하며 한 목소리로 인천 유치를 외치고 있다.

<붙임> 유럽한인총연합회 성명서(3.24.) 전문



유럽한인총연합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Europe  
Hauptstr. 336 65760 Eschborn, Germany W: eu.korean.net

E. yuchonggermany@gmail.com T. +49-6195-9761 980 H. +49-172-6563470

재외동포청 유치 선호도시 관련 여론 조사 문제점 많다.

2023년 3월 23일자로 보도된 재외동포청 유치도시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동포청 설치로 희망에 들뜬 동포사회에 찬물을 끼얹고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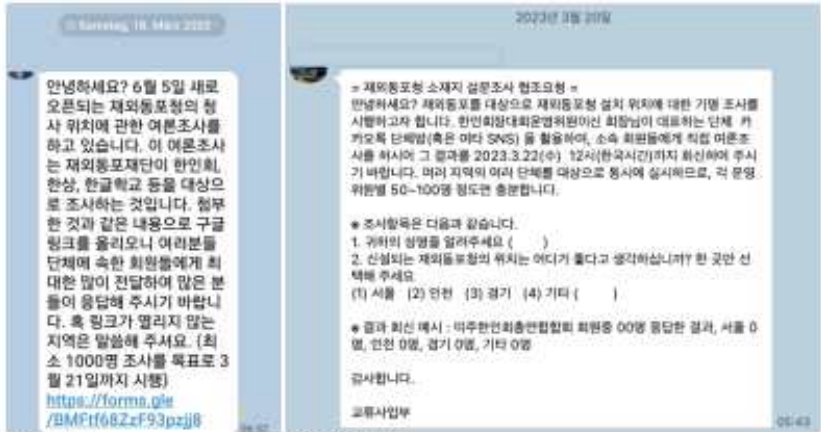
동포재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요청 카톡을 유럽한인총연에서는 총회와 웅변대회 개최로 바쁜 기간 중에 받은 바,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의 제안 및 당위성, 재외동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정책과 청사진에 대한 소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면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 20여명에게 전권을 주어 설문조사를 하고 인원수만을 보고하라는 형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과 유럽총연은 금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천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유럽동포들의 의사는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금번 재외동포청 유치 선호도시에 대한 조사가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정책결정에 악용되는 등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1. 개인적인 의견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각 도시의 제안이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3. 두 번의,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었다.
4. 단체별로 설문을 취합해 대표자가 해당 숫자만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동포청 유치 선호도시에 대한 금번 설문조사는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재외동포청의 위치 결정은 청을 유치하려는 도시가 재외동포들에게 어떤 정책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청이 외교부에 속한 한 부서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행정편의 주의에 따라 결정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설문조사로 동포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설문조사 요청 카톡



2023.3.18

2023.3.20